

#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감잡이

#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감잡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안녕한 상태를 청소년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해야 할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하루에 몇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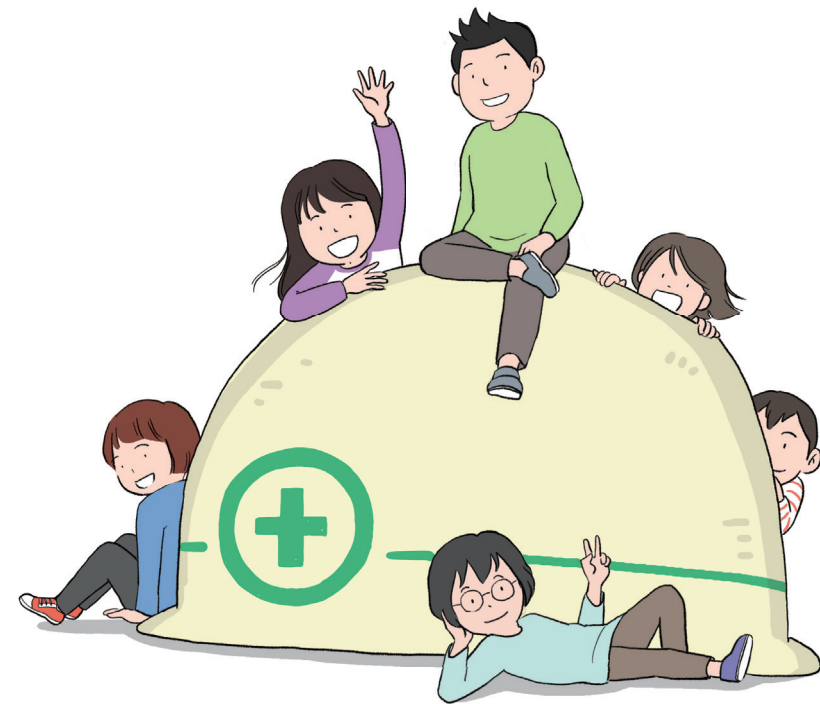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을 나갔던 청소년이 기계에 깔려서 죽고, 일터 괴롭힘과 직무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소년노동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현장실습을 나간 산업체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선 함께 참여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 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사고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업병이 생겼을 때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 작업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주위의 동료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제기**해 봅시다.
- 노동자의 실수로 다친 경우라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에도,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8년 12월 15일 제정



## 집필 및 자문의원

한국노총조합총연맹 | 이연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 김지정, 이숙건, 이영일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서동현  
천주교부산교구 노동사목 | 성지민  
청소년활동가 | 하밍